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모심으로 하나되는



제191호(통권586호) 포덕 163(2022)년 4월 8일(금요일)
 발행인 : 박상중 / 편집인 겸 주간 : 주용덕 / 인쇄인 : 윤병업 / 발행소 : 천도교중앙총부

“성·경·신을 다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도록 거듭 다짐하자!”

전국 교구에서 일제히 봉행, 중앙대교당은 종교계, 정치계, 문화계 인사 등 4백여 명 참석



중앙총부는 포덕 163년 천일기념식을 4월 5일 오전 11시 중앙대교당과 전국 교구에서 일제히 봉행하였다. 중앙대교당에서 봉행된 천일기념식은 종교계, 정치계, 문화계 등 내빈과 교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당 이미애 교화관장의 집례로 의식에 이어 청수봉전(여성회중앙본부 이미희 동덕), 경전봉독(포덕문, 박장재 여성회중앙본부 회장), 천덕송합창(기념송), 기념사, 축사,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천덕송합창(천일기념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광암 박상중 교령은 기념사에서 “대신사의 무극대도 창명은 인간을 차별하던 선천사회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켰고, 동귀일체(同歸一體)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시천주란 신과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인합일(神人合一)의 가치체제로, 인간과 우주가 하나이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며, 인간과 인간이 하나인 것이 시천주”이며, “너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닌 공동운명체라는 시천주의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배제하여 동귀일체(同歸一體) 하는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 교령은 “스승님께서 생명을 바쳐 지켜온 시천주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과 “지구는 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온 지구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만을 위한 삶에서 만물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만물을 공경하면 나도 살리고 자연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박 교령은 “대신사께서 ‘한번 입도식을 거행하는 것은 한울님을 영원히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一番致祭 永侍

之重盟)라 하였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입도식 때 서천문에서 맹세한 그대로 초심(初心)을 지켜 성·경·신을 다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도록 거듭 다짐하자.”고 하였다.

이어 송진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성균관 관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종무실장 대독),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양재성 목사(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하윤수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을동 전 의원 등 각계 인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상중 교령은 신암 송범두 전 교령을 비롯하여 교단에 공로가 많은 1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부산 동천고등학교 황성준 외 7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공로패 수상자와 장학증서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공로패 : 송범두(전 교령), 박인준(전 총무원장), 전명운(전 교화관장), 박남준(전 교무관장), 장구갑(전 사회문화관장), 이창변(전 상주선도사), 김응조(전 연원회 간사), 선우철수(전 유지재단 이사장), 임형진(전 중학대학원장), 김경규(전 교당관리실장), 박차귀(전 여성회중앙본부 회장), 이홍자(전 여성회 상임위원), 김미정(전 여성회 교화부장), 임남희(전 여성회본부 포덕부장)

장학증서 : 황성준, 김민준, 김민범, 전민규, 권준모, 정근우, 김현준, 김성민(이상 부산 동천고등학교)

기념식 후 정갑선 교무관장의 사회로 천도교합창단의 합창, 송지용과 김평부 공연(생명의 검, 살리는 검무), 서울 교구 중창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다.(관련 기사 2~3면 참조)

광암 박상중 교령 취임식 봉행 중앙대교당, 새로 구성된 집행부 소개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광암 박상중 교령 취임식이 천일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중앙대교당에서 봉행되었다.

정갑선 교무관장의 집례로 진행된 취임식은 맹암 정명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임시의장의 박상중 교령, 주용덕 총무원장 당선 및 인준 도침 수여에 이어 박상중 교령이 취임사와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소개하였다.

박상중 교령은 취임사에서 “과거 동학, 천도교가 세상에 커다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조리한 세상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 교단은 무엇보다도 신앙 중심체제로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교단 내에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정진하며 참신한 수련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일기념사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은 수운 대신사께서 경신년(庚申年)에 무극대도를 득도하시어 천도교를 창명하신지 163년째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천일기념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아 포덕천하의 역군이 되어 대신사께서 창명하신 시천주(侍天主)의 진리가 온 세상에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성지우성(誠之又誠) 하시기를 심고합니다.

대신사께서 탄생하신 조선조 말엽은 유학(儒學)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무구범 사회로 전락한 나머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도참설(圖讖說)에 현혹되거나 승지(勝地)를 찾아 방황하는 등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사회상을 한탄하시면서 “유도(儒道) 불도(佛道)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서구세력의 침략으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중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인한 위기의식까지 겹친 나머지 보국안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방황하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제인질병(濟人疾病)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일념으로 오랜 구도 고행 끝에 경신년 4월 5일에 무극대도를 득도(得道)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명된 무극대도는 당시 민중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개혁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전통사회 가치관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혁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극대도의 창명은 첫째로 인간을 차별하던 선천사회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신사께서 각득하신 시천주(侍天主) 진리는 신(神)과 인간에 대한 종속적 불평등을 타파하여 이 세상 백천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신령한 존재(最靈者)’로 정의함으로써 재래의 신화적 세계관을 혁신하는 전기(轉機)를 이룩하였습니다. 인내천(人乃天)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적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시천주는 분명히 미래사회의 가치관을 변혁시켜 새로운 인류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대신사께서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천주란 신과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인합일(神人合一)의 가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우주가 하나이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며, 인간과 인간이 하나인 것이 시천주입니다. 너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닌 공동운명체라는 시천주의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배제

하여 동귀일체(同歸一體) 하는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천개벽에 기초한 수운 대신사의 역사관은 왕조 중심의 선천적 역사를 시천주의 진리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천도교는 온갖 역경과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동학혁명과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족사의 굽이마다 보국안민의 선봉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신사의 이러한 신념은 각자위심에 물든 구시대의 낡은 세력에 의해 이단(異端)으로 몰리는 수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대신사께서는 포덕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대구 장대에서 참형(斬刑)을 당하여 순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에 우리 역사는 당시의 위정자를 비판하면서 대신사의 신념과 순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스승님께서 생명을 바쳐 지켜온 시천주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천주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온 지구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만을 위한 삶에서 만물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 지구를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겪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만물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만물을 공경하면 나도 살리고 자연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대신사께서는 ‘한번 입도식을 거행하는 것은 한울님을 영원히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一番致祭 永侍之重盟)’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도교에 입교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입교식 때 서천문에서 맹세한 그대로 초심(初心)을 지켜 성경·신을 다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도록 거듭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천일기념을 거듭 경축하면서 우리가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천덕사은(天德師恩)에 보답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당부하면서 이만 기념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2022)년 4월 5일

천도교 교령 박상종 심고

취임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빈 여러분, 전국의 동덕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수운 대신사께서 천도교를 창도하신 천일 기념일입니다. 잠시 스승님들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대신사께서는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 하셨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함에 반드시 악을 숨기고 선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를 삼으라” 하시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욕을 참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스스로 자기 잘못을 책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회 당선시 저는 “대화합의 교단 문화를 창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큰 도를 반드시 얻으니, 항상 생각하라. 내가 못 사람을 사랑하면 못 사람이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요, 못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체행 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임기 동안 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동귀일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무엇보다도 신앙 중심체제로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과거 동학,

천도교가 세상에 커다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조리한 세상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사께서는 도를 깨우치지 못하면 다시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큰 결심으로 불출산외(不出山外)의 맹세를 하면서 무극대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포덕 163년을 맞은 지금도 이러한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내에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참신한 수련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기사, 연원회를 중심으로 수련 지도, 교리 연구 등을 통해 포덕 교화를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원을 지원하고 용담수도원과 의창수도원은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총부는 지방 교구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구장 중심제’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넷째, 교구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인근 교구 간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활발하게 생동하는 교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위가 미덥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위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재원수 아닐런가” 하신 대신사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책재원수(責在元帥) 즉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새기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도록 성지우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년 4월 5일

교령 박상종 심고

천일기념식 축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수운 최계우 대신사에서 동학을 창도하신 지 올해로 1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행하고 대지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날에 박상종 신임 교령님의 취임과 함께 포덕 163년 천일기념식을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을 위해 애쓰신 천도교인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종단 관계자분들과 내외빈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도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수운 대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민중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활동, 3·1운동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단초를 마련하는 등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변하는 사회, 경제환경에 따라 인간성과 도덕,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천도교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천도교를 통해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자세로 국민 모두가 일상 곳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식의 봉행과 박상종 신임 교령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코로나 이후 맞이할 새로운 일상에서도 천도교의 정신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 4.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제40차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 인사임명

교령사 | 교령 박상종, 전서실장 문범식

연원회 | 의장 이정희, 부의장 김산, 김성환

종무원 | 원장 주용덕, 종무원 이미애(교화관장·사회문화관장 겸임) 정갑선(교무관장·경리관장 겸임) 김진순 박노임 박차귀 석영기 윤철현 정의적 허태영

차장 김동수 명주석 이선화 서종남 김상균, 관서 김태운 김영희

종의원 | 의장 선우철수, 부의장 최홍규, 의원 강대기 강봉준 고봉섭 구종현 군태명 김미정 김병휘 김영란 김영백 김인구 마동근 문제월 박부섭 박연환 박옥실 박징재 박형래

방상언 서광우 염정모 오제운 유성재 유원진 이갑식 이상선 이용수 이원영 이재성 장순명 장순원 장영에 장효선 정기수 정성완 조광결 최갑선 최용범 최인경 최재원

최중환 하점선 황승규

감사원 | 원장 정덕재 중앙감사 강병로 박성자 박완주 신정 안희철 여성훈 최창식 하재우

유지재단 | 이사 김건영 성강현 오태승 신명식

복지재단 | 이사 김경곤 김순홍 남용미 서소연 정기명

종학대학원 | 원장 이상면, 교무차장 서소연

중앙도서관 | 사서 강선녀

동학기념관 | 관장 이윤영, 전시실장 신순재

용담수도원 | 원장 최상락, 관리인 김명숙

의창수도원 | 원장 박충남, 관리인 이오도

신임 집행부, 도첩 수여

각 관장과 차장

신임 집행부는 종무행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4월 1일 오전 11시 회의실(수운회관 907호)에서 도첩 수여식을 가졌다.

성암 정갑선 교무관장의 집례로 진행된 도첩 수여식은 신임 광암 박상종 교령의 인화당 이미애 교화관장(사회문화관장 겸직), 성암 정갑선 교무관장(경리관장 겸직) 도첩 수여에 이어 용암 주용덕 신임 종무원장은 각관 차장에게 도첩을 수여하였다.

사설

새 집행부에 바란다

지난 3월 17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박상종 선도사가 새 교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일 대회 현장을 지켜본 교인들은 대회진행의 미숙함과 편파성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였다. 임시의장단을 뽑기까지 사회를 맡은 종무원장의 진행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임시의장단이 진행을 하면서 교헌과 절차에 의하여 이미 상정하기로 결의된 개정안을 폐기하려는 한 태도는 미숙함을 넘어 의도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이번 교헌개정안은 교헌 제81조에 의거 교령이 발의한 것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만 물으면 되는 것이었다. 대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교헌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39차 대의원대회에서 2년 내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의결한 사안이다.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임시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기에 제39차 대회 결의를 존중하여 제40차 정기대회에서 이를 다루게 된 것이다. 상식과 공정, 교인으로서의 도덕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기 생각 속에 매몰되면 커다란 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편, 이날 교령 당선자가 교단의 화합을 위하여 대사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그 정황을 이해하면서도, 징벌사유와 사면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다. 징벌과 소송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교단이 시끄러웠던 점을 헤아린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회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감

으로써 교인들의 의혹과 불만을 풀어드리는 것 또한 대회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징벌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전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인선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교령 집행부가 짚어진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열된 교단을 하나로 뭉치는 일이다. 편 가르기나 편애는 난법난도와 같은 것. 동귀일체를 이루어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새 교령은 교구장 중심의 교단 운영, 현기사 조직 재정비를 통한 참신한 수련문화 창달, 새로운 대화합의 교단문화 창출을 약속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지만 현시점에서 정곡을 찌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 소통하고 정성을 다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과제들이다.

교령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교인들에게 다가가 사인여천을 숭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교인들이 감동할 것이다. 교단의 안정은 교령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령의 생각과 자질이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부족한 점은 스스로 닦아 채우면서 지도자로서 공평무사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덕들 또한 모든 책임을 교령 한 사람에게만 지우고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타 이르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실천적으로 신앙하는 참 천도교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신임 송범두 교령 이임식 가져

지난 3년간 회고와 당부, 대외적으로 천도교 알리는데 노력



지난 집행부 종무원은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신임 송범두 교령 체제의 월례회를 겸해 이임식을 가졌다. 성암 박남준 교무관장의 집례로 진행된 월례회는 준암 박남준 종무원장의 월례사를 겸한 마지막 종무사를 하였다.

이어 진행된 퇴임식에서 신임 송범두 교령은 "취임 당시 복지재단 등 교단 내에 산재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사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며, 교단 발전을 위해 계획한 것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회고하였다. 또 "대외적으로 천도교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등 보람된 일도 없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3년간 함께 한 중앙총부 임직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울산 대신사유허지 동학관 개관식 개최”

중구청 주관, 지상 1층 전시실과 회의실 등 갖추어

동학관 전경사진



울산 수운대신사 유허지(울산시기념물 제12호) 동학관 개관식이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울산 중구청의 주관과 천도교중앙총부, 유허지보존회 등 후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관식은 천도교 의식과 국민의례, 경과보고, 박태완 중구청장의 기념사, 장수완 행정부시장 축사, 박인준 중무원장과 유허지 보존회 최현만 회장의 인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번에 문을 연 최재우 유허지 동학관이 울산과 동학의 관계, 민족종교 동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자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축사에서 “동학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나라의 튼튼한 반석을 이루어 내는 역할 및 민중의식의 고양과 민주와 자주의 이념을 제공하였다.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학 천도교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인준 중무원장은 “동학관이 개관됨으로써 울산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자리매김뿐만 아니라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 사상과 정신이 온 누리에

퍼져 민족정신의 자양분과 민족통일의 디딤돌과 인류 평화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심고드린다”고 했으며, 유허지 보존회 최현만 회장은 “동학관 건립을 계기로 민족통일과 세계인류평화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교육장을 펼쳐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다하는 데 보존회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개관식 후에는 울산지역 동학문화해설사이며 유허지보존회 사무국장 박충구 도훈의 안내와 해설로 자료전시실을 관람하였다. 중구청은 박인준 중무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개관식에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해 울산시 행정부시장 문화예술과장, 중구청 명예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 울산중구지역 문화관련 단체, 중구 각 분야 자치단체장, 중앙총부에서는 박인준 중무원장, 전명운 교화관장, 최상락 용담수도원장, 정의맹 전 연원회의장 및 김산·성강현 연원회 부의장, 김희수 경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용수 울산시교구장 및 울산 인근 부산·마산·진주·통영·경주·대구지역 등 각 교구의 대표 및 교인 다수와 최현만 유허지보존회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개관한 동학관은 연면적 428㎡(약 130평), 지

상 1층 규모로 동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전시실(약 45평)과 교육 및 체험 학습 등을 위한 회의실,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동학관 건립에는 시비 16억 원, 구비 7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23억 원이 투입되었다.

중구청은 지난 2018년 3월 6두락 답을 매입한 후 2019년 1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주)우진토건에서 2020년 7월에 착공해서 2021년 6월에 준공검사를 마친 후 8월에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전시기획은 (주)지아이웍스가 맡았다.

▶개관식 성금 내역 / 부산시교구10만원, 용담교구20만원, 최상락(용담수도원장)20만원, 진주시교구 10만원, 대구대덕교구10만원, 부산여성연합회10만원, 김산(연원회부의장)10만원, 천도교여성회10만원, 부산대동교구10만원, 구옥주(부산대동교구)5만원, 마산교구10만원, 울산시교구30만원, 이용수(울산시교구장)10만원

▶경축화환 / 중앙총부, 용담교구, 울산시교구, 진성당 최말란, 천도교연원회 (글:사진/박충구)

현재의 여시바윗골 땅 매입과 유허비 건립



지금의 여시바윗골 땅 매입과 유허비 건립은 1998년 대신사의 중현손녀 최말란여사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졌다.

울산여시바윗골은 몇 년이 걸렸는데도 땅을 사니 되더라고요. 1990년도 어느 저녁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나운서가 갈대밭에서 취재를 하더라고. 동네 노인이 나와 그 곳이 최복술(수운대신사 젊었을 때 별

명)이가 공부한 자리라고 하는 거라. 그 노인이 작대기를 헤치니 갈나무 한그루가 있는데 여기기는 그분이 살던 곳이라 하고 저기는 공부한 자리라면서 보여 주더라고요. 그 방송은 내가 우연히 본 거야. 이튿날 당장 거길 갔지요. ...

총부에 올라가서 자초지정을 말했어요. 우리 역사를 하는 표영삼 선생님한테 가서 말했죠. “알면서 지금까지 왜 가만 있었냐?”고 하니 그 골짜기에 표지석 하나 세우면 되는데 총부에서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하는 거라. ...이장 집 할머니가 82살인데 다 알아요. 최복술이 그 할머니(박씨부인)가 고생 많이하고 부모나고 갔다고 말해요. ...8백만 원으로 88명만 사왔지요. 그 사람도 그냥 드러도 드러야 될 땅인데 하면서 돌려주더라고요. ...울산시 담당자가 알려주는데 이것을 문화재 신청하면 돈이 나오고 돈이 될 든다고 하대요. 시에서 현장답사 나온다고 해서 총부에 갔어요. (김재중) 교령이 50



평을 해주더라고요. 시청의 문화재 직원이 더 크게 하래요. 골짜기 다해도 되는데 다 하래요. 천 평 정도되더라고요. ...접수하고 허가가 완전히 나고 문화재청에서 돈 4천만원 나오고 그때부터 총부에서 서둘러서 일이 된 거라요. ...그 이듬해 문화재청에서 1억이 나오더라고요. 비각 세우는 것은 내 돈 4800만원 들여서 했어요. 땅도 내가 샀어요. 2007년에 내 돈 6천만 원 들여 비각을 다시 올렸어요. (최말란, 『한올마음 여인들』)

제21차 천도교여성회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성수당 박징재 신임회장 선출

3월 25일 오후2시 중앙대교당에서 전국 지부장과 중앙위원, 비례대표 등이 참석(58명 참석, 20명 위임)한 가운데 제21차 천도교 여성회 전국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교회의식에 이어 박차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영화 중앙위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의안 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규정·규약 수정안 심의는 수정안을 보충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모두의 박수로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 이어 회장단 선출은 사찰과 서기를 지명하고 투표소를 준비하였으나, 박차귀 회장이 추대를 하자는 의견과 함께 밖으로 나가도 모범이 될 인물이라며 여성회 부회장인 박징재 부회장을 추천하였고, 특별히 다른 후보자가 없자 만장일치로 박수로서 추대하여 선출하였다.

그리고 감사로는 현 회장이 이미희 감사를 추천하고, 신임 회장이 박태량 감사를 추천하여 연임하게 되었다. 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추후 지명하기로 하였고, 중앙위원 49명은 임시의장, 전임, 후임 회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박수로 결의하였다.

박징재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여성회원님들의 정성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박상중 교령 당선자는 신임 박징재 여성회장과 박차귀 회장에게 꽃다발을 증정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안건에서는 여성회 100주년창립기념위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3월 25일 오후2시 중앙대교당에서 전국 지부장과 중앙위원, 비례대표 등이 참석(58명 참석, 20명 위임)한 가운데 제21차 천도교 여성회 전국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교회의식에 이어 박차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영화 중앙위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의안 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규정·규약 수정안 심의는 수정안을 보충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모두의 박수로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 이어 회장단 선출은 사찰과 서기를 지명하고 투표소를 준비하였으나, 박차귀 회장이 추대를 하자는 의견과 함께 밖으로 나가도 모범이 될 인물이라며 여성회 부회장인 박징재 부회장을 추천하였고, 특별히 다른 후보자가 없자 만장일치로 박수로서 추대하여 선출하였다.

그리고 감사로는 현 회장이 이미희 감사를 추천하고, 신임 회장이 박태량 감사를 추천하여 연임하게 되었다. 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추후 지명하기로 하였고, 중앙위원 49명은 임시의장, 전임, 후임 회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박수로 결의하였다. 박징재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회원님들의 정성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박상중 교령 당선자는 신임 박징재 여성회장과 박차귀 회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기타 안건에서는 여성회100주년창립기념위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여성회)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천도교 합동위령식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사회문화관 등 참여



지난 4월 2일(토) 오후2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어울림터에서 사회문화관,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천도교청년회가 함께 하여,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합동위령식을 봉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4월 3일 오전에 열린 제주4·3 서울 추념식에서 현기영 작가는 “그동안 민주화 투쟁 덕분에 4·3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런데, 겉으로만 알려져 있고 4·3의 진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이는 무심해서 모르고, 어떤 이는 일부러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고, 어떤

이는 진상을 왜곡하여 ‘빨갱이’라고 주장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치밀하고 세련되게 4·3을 알려서 4·3의 일반화,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하여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 3만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사진 최인경)

정규 및 통신과정

모집인원	00 명
모집지역	서울본원(수원회관 307호) / 부산본원(부산 대동교구)
수업연한	2년(4학기)
지원자격	1) 종학대학원을 이수하지 못한 교역자 2) 종학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천도교인 3) 종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받고자 원하는 자로서 각 교구장의 추천이나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수학 능력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일반인
등록금	매 학기 20만원(입학금 10만원)
교육방법	출석수업 및 원격학습
정규과정	토요일(오후 1시 - 오후 6시) 수요일(오후 7시 - 오후 9시) (부산본원은 별도 과정으로 운영)
학사 일정	2022년 3월 5일(토) - 6월 11일(토) / 15주
장소	수원회관 307호

전형방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서류	입학원서, 학업 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추천서 각 1부 사진 2매(3x4명함판)
제출방법	종학대학원 교무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응시원서 : 홈페이지 www.chondogyo.or.kr 참조 포덕 163년 2월 1일(월) - 포덕 163년 4월 30일(토) 오후 5시까지 개별 이메일 통보
서류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우리은행 443-137754-13-001 (예금주)천도교중앙총부
입학금 등록금 입금계좌	
문의	02)720-3020 010-9671-2484

천도교종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원회관 307호 우)03147
 TEL 02)720-3020 FAX 02)732-6073
 E-mail: jusinkhan@naver.com / webmaster@chondogyo.or.kr
 홈페이지: http://www.chondogyoac.or.kr

제98주년 여성회 창립기념식 봉행

- '여성 지도자 준비와 신앙심 회복을 위한 해'



3월 25일 중앙대교당에서 여성회 창립 98주년 기념식을 봉행하였다. 창립기념식을 맞이하여 100여 명 회원과 교인들이 참석하였으며, 외부 인사들은 축하영상을 보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주영선 총무부장의 집례로 시작된 기념식은 박차귀 회장의 기념사와 송범두 교령의 격려사와 외부 인사들의 축하영상, 상패 수여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여성회의 연혁 및 포덕 161년도 활동보고, 천덕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차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교회가 재도약 발판 마련과 발전의 근원에는 여성회의 역할과 무게에 비례하고 있다. 여성회본부에서는 여성회 발전이 곧 교단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98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기틀이 되기 위해서 전국 여성회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송범두 교령은 격려사를 통해 "해월신사께서는 여성을 '한 집안의 주인(一家之主)'이라 하셨다. 따라서 우리 여성회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중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은 여성들의 각계각층에서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성 위주의 구시대가 지나가고 장차 일남구녀의 여성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대적 추세이며 오만 년 무극대도를 지향한 다시개벽의 새로운 모습이다. 여성회원들은 소속 교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천도교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 하였다.

축사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사)민족대표33인유족회 김재옥 이사장 등 각계각층에서 여성회 창립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주었다. 이어진 상패 수여에는 공로상(부산시지부 지성당 김주연, 선구지부 성심당 최진심, 수원지부 연화당 김순연, 춘천지부 명심당 유명희), 감사상(통영지부 금성당 박금분, 영산지부 선진당 권무선, 서울지부 진성당 이진환) 상패를 수여하여 그들의 정성을 감사로 전하였다.

다음으로 영상으로 보는 여성회 연혁 및 활동 보고는 여성회의 역사와 포덕 160년~162년 3년 동안의 여성회의 활동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꾸며 41대 여성회가 활동했던 생생한 장면들을 담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취소되어 활동을 못했지만 3년간 여성회의 노고와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영상이었으며, 기념식의 꽃이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천도교연합합창단의 천덕송 '동학의 딸' 합창 후 폐식 심고로 기념식을 마쳤다.

식후 축하공연으로 천도교연합합창단(단장 조보아)이 '축하의 노래, 한울세상, 아리랑 이음곡, 울산아가씨' 등을 노래하고 앵콜을 받아 '봄치녀'를 불렀다. 한편,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한울장터는 생략되었고, 2년 동안 코로나로 창립기념식이 소수의 인원으로는만 진행되었지만 이번 98주년 창립기념식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서로 손잡고 웃으며 인사 나눌 수 있는 기념식이어서 모두에게 즐거운 기념식이었다. (천도교여성회)

마포교구 정기회의, 여성회 정기총회 개최

- 김진순 교구장 연임, 여성회장 이정녀 동덕

마포교구는 4월 3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포덕16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포덕16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통과 및 임원선출을 하였다. 교구 임원은 다음과 같다.

교구장 덕신당 김진순 선도사(연임), 감사장 길암 박남용 선도사, 감사 덕암 장용덕 선도사, 교화부장 비암 김정호 동덕, 교무부장 용암 양용집 동덕, 경리부장 수경당 이미희 선도사, 청년회장 안재규 동덕

○ 마포교구 여성회 정기총회(3월 6일 개최) 결과

회장 정심당 이정녀, 부회장 수정당 이차희, 진성당 최향순, 감사 수정당 이미희 선도사, 총무 진성당 양선미

청년회가 간다!

- 청년회 3월 26~27일 양일간 부산모임 진행



천도교청년회(회장 이재선)는 올해는 조직 재건을 목표로 움직이는 청년회가 되고자 매달 혹은 격달로 교구방문 및 청년회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첫 모임으로 부산 및 인근 지역 청년회원들과 대학생단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코로나 확진자 속출로 인원을 제한하여 3월 26~27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6일은 주로 대학생단 및 청년들을 만났으며, 27일은 임원 위주로 부산시교구를 방문하여 시일식에 참석하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올 한 해 청년회는 조직 재정비 및 내실 강화에 힘쓰는 데 집중하여 매달 인원에 상관없이 만남과 모임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년회)

성금자 명단

대신사순도추모 및 합동위원장	박남수	동서울	50,000	윤용배	마산시	100,000		
최상은	영등포	1,000,000	박징재	서울	50,000	윤성진	마산시	100,000
길혜경,배명숙	마포	100,000	박해용	영등포	50,000	이국진	서울	100,000
고윤지	한강	50,000	심점례	도봉수유	50,000	이원벽	용담	100,000
김민경	부안	50,000	여성훈	남해	50,000	정정호 이주향	한밭신도	100,000
김산	마포	50,000	이덕열	동서울	50,000	조용순	마산시	100,000
박남수	동서울	50,000	이승민	송탄	50,000	주용덕 황명옥	마산시	100,000
성주현	관의	50,000	이영노	시흥	50,000	지성당 가족	부산시	100,000
신혜원	동서울	50,000	이홍자	마포	50,000	채수업	아산	100,000
한광도	서울	50,000	최태형	서울	50,000	최상락	용담	100,000
심점례	도봉수유	30,000	하재우	강남	50,000	허성호	100,000	
전명운	시흥	30,000	한한숙	서울	50,000	황지숙	용담	100,000
박성기	서울	20,000	허태영	영등포	50,000	무기명	100,000	
주영선	한강	20,000	홍래준	당산	50,000	무기명	63,000	
			김길영	서울	30,000	강희경외3	의정부	50,000
			김명덕	강남	30,000	김정은	부산시	50,000
천일기념	강남	운동복300벌	김정숙	서울	30,000	도상록	대구시	50,000
박상종교령	영등포	1,000,000	김탄실	서울	30,000	박계일	부산시	50,000
최상은	청원	200,000	박병용	서부	30,000	박세수	50,000	
서민중	100,000	박성원	성동	30,000	박시경	50,000		
(사)동학소년회	100,000	방응선	30,000	박태호	50,000			
강선녀	도경	100,000	안희철	강남	30,000	송영현	은척동심	50,000
강기권,한명숙	당산	100,000	이재선	전주	30,000	오진자	용담	50,000
공향교구	100,000	장길숙	영등포	30,000	이갑식	서울	50,000	
구수용,강대순	당산	100,000	전명운	시흥	30,000	이국진	서울	50,000
권태명	종로	100,000	정행엽	강남	30,000	이분희	부산시	50,000
김산	마포	100,000	조정민	영등포	30,000	이영례	용담	50,000
김성환	용담	100,000	김학립	한강	30,000	일심당	북부산	50,000
김정호	마포	100,000	박성기	서울	20,000	임대진	순천	50,000
마동근	관의	100,000	박은조	서울	20,000	임대진	순천	50,000
마포교구	100,000	배명숙	강남	20,000	정덕제	고성	50,000	
박남용	마포	100,000	이영혜	마포	20,000	정옥숙	마산	50,000
방상언	대구대덕	100,000	전태흠	송탄	20,000	주용한	대구시	50,000
변중제	서울	100,000	최흥룡	영등포	20,000	최석문	용담	50,000
성주현	관의	100,000	신소순	옥구	20,000	최윤혁	용담	50,000
이정희	대동	100,000	이상우	서울	10,000	최중환	용담	50,000
장인갑	동서울	100,000	이상규	10,000	경화당 이명자	용담	30,000	
정승부	통영추위	100,000	이승규	영등포	10,000	김영자 강무원	포항	30,000
정의맹	마산	100,000	장세만	서울	10,000	성강현	대동	30,000
주용덕	청원	100,000	강호신	삼신	10,000	최원호	대신사후손	30,000
청원교구	서울	100,000	조광수	영등포	10,000	강희경 이석재	의정부	20,000
채정훈	수원	100,000	조화훈	종로	10,000	고숙례	고성	20,000
하덕수	부산	100,000	무기명	50,000	박성배	연양	20,000	
하윤수	서울	100,000	무기명	25,000	이복임	용담	20,000	
한광도	100,000				정초명 고광민	고성	20,000	
한울연대					무기명	12,000		
강대기	당산	50,000	시원포	시원포	300,000	무기명	11,000	
고정섭	황화	50,000	박상종	강남	200,000	무기명	10,000	
김상길	관의	50,000	김장연	부산시	100,000	박훈균	고향미	10,000
김석환	관의	50,000	박기섭	부산시	100,000	무기명	10,000	
김순홍	인천	50,000	방상언	대구대덕	100,000	무기명	10,000	
김영숙	양주	50,000	성주현	관의	100,000	무기명	10,000	
김진순	마포	50,000	염상철	서울	100,000	무기명	2,000	

수도원이 365일 돌아가게 해주세요

공사다망하신 박상중 교령님께

먼저 교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천도교는 천주교나 원불교처럼 정녀, 수녀 이러한 별직을 가진 여성은 없습니다. 대신 내수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스승님들께서 '내수도'들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지만 타 종교처럼 정녀, 수녀 등에 비하면 부족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건의라면 건의이며, 당부라고 하면 당부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불과 몇 해 이전만 해도 수도원은 365일, 참으로 훌륭한 천도교 교인분들 특히 내수도들께서 수도원을 통하여 천도교의 밑거름 역할을 해 오셨고, 지금도 수련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심화기화로 이만큼 천도교가 자리매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남성 동덕들이야 내수도들보다 활동을 넓게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남성 동덕님들 모두를 합쳐도 열심히 수련하시는 내수도 한 분만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천도교인이 한 명이면 어떻게 백 명이면 어떻게,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수도원 운영이 365일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20대 때 가리산수도원, 호암수도원 등을 돌아다니며 수련했던 기억을 하면서, 요즘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수도원은 두고라도 총부 직할 수도원은 총부 차원에서 제대로 두고 운영했으면 합니다.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내수도님들과 관심있는 교인들이 마음 놓고 수련 수도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단이 발전되어 한자리에 500명의 도인이 나오는 시대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공사다망하신 신임 교령님께 꼭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포덕 163년 3월 29일 서울교구 민암 정성민 심고

자원순환활동가 모집

한울연대, 4월14~4월30일 체험교육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과정 모집

4월 14일 (목요일)	1차	11:00 ~ 12:20	오리엔테이션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이미애
	2차	12:30 ~ 2:00	제로 웨이스트 장보기 체험	이민송
4월 16일 (토요일)	3차	9:30 ~ 10:50	강서 허그어 웨일 운영사례	김민수
	4차	11:00 ~ 12:30	망원 알맹상점 운영사례	이주은
4월 23일 (토요일)	5차	9:30 ~ 10:50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 운영사례	김현정
	6차	11:00 ~ 12:30	노원 마들장 운영사례	김의종
4월 30일 (토요일)	7차	9:30 ~ 10:50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기획 및 교안작성 I	강주효
	8차	11:00 ~ 12:30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기획 및 교안작성 II	정진숙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과정을 모집합니다!

기간 및 장소
2022년 4월 14일 ~ 4월 30일
노원뎃밭교육장, 마포구 홍제천 인근 등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예정)

10명 모집
활동가로 직접 참여 가능한후 우선 선발

장보기 체험비 2만원

문의 및 접수
한울연대 사무국
Tel 010.6285.6765

한울연대(상임대표대행 정미라)는 자원순환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 자원순환 활동가는 제로웨이스트숍이나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제로웨이스트숍으로 유명한 알맹상점, 성남 자원순환가게, 허그어웨일, 직거래 장터 노원 마들장의 각 운영자들을 직접 모셔서 소중한 노하우를 배우는 자리다. 두 번은 줌수업, 두 번은 대면이고, 대면 중 한번은 장보기 체험이다. 모든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라 일체 부담이 없으며, 첫날 각자 장보기 체험할 것만 2만 원 개인 부담이다.

한울연대도 프로그램 끝나고, 유무상점 만드는데 함께할 계획이며 많은 동덕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온양 3.11만세운동 재현 행사

- 3월 11일, 온양초교와 옛 온양장터에서 아산교구 참여



지난 3월 11일 아산시 온양초등학교와 옛 온양장터에서 103년 전의 온양지역 3.1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첫 번째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풍물패의 식전 공연, 시 낭송, 온양 3.11만세운동 내용과 의의 공유, 축사,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장터까지의 만세 행진, 온양장터에서의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온양6동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천도교아산교구, 아산YMCA 등 여러 단체가 행사에 참여하였고, 교육지원청과 온양초등학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였다.

한편, 아산시에서는 1919년 3월 11일에 온양(당시 온양면)에서 시작되어 만세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11일에 온양초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산시 지역 최초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고 온양장이 열린 시장에서 이튿날과 14, 15일에도 계속되었다. 이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창면 등 당시 아산의 12개 면 모든 지역의 수십 곳 산꼭대기에서 주민들이 밤에 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던 봉화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둔포와 신창, 선장 등 몇 곳에서는 광혈 파괴, 상점 방화, 관공서 파괴 등 폭력적 시위도 펼쳐졌고, 아산 지역 3.1만세운동은 4월 4일 선장 장터에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가 충남에서 가장 많았고 한 분의 순국 외에도 감옥살이와 태형 등을 당한 희생자가 많았다.

아산 선장면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2007년부터 선장면 4.4만세운동 기념 및 재현 행사가 시작되어, 2010년부터는 아산 만세운동 전체를 기념하는 '아산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로 승격되었다. (글/사진 황의대)

어린이 선언 공모전 개최

- 7~13세 대상, 경주동학문화창작소 주관



100회 어린이날!

어린이선언 공모전

기간 2022.4.5 - 4.15

경주동학문화창작소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선언 공모전을 경주교육청, 경주문화원, 경주신문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다. 7~13세 어린이(다문화 가정 어린이 포함)를 대상으로 세 문장 이상 손글씨로 '나의 어린이선언'을 A4용지에 손글씨로 쓰고 꾸미고 채색하여 4월 15일까지 경주동학문화창작소(경주시 금성로347번길10, 2층)으로 보내면 된다. 작품이 채택된 어린이에게는 경주시장상(1명), 경주시교육장장(1명), 경주문화원장장(1명), 소파방정환상(30명, 1만원 상당 상품 및 상장)이 수여된다. (글/사진 김성표)

<환원 소식>

▶복천당 최순애(73세, 삼천포) 동덕 환원
환원일시: 포덕163년 3월 24일 15시경 / 상주: 김수용 김수광 김수환, 며느리: 노미희 백혜숙 박정연, 손: 민우 범웅 동수 히현 가영 손 지은 윤영, 남편: 김봉식

▶채성석(86세) 선생 환원(여성회 신주민 국장의 시부)
환원일시: 포덕163년 3월 27일 오후 / 상주: 자 채수광, 자부 신주민

▶치암 윤치원(흥신포) 동덕 환원
환원일시: 포덕163년3월31일(목) / 상주: 윤한울

고인의 성령출세를 심고합니다.

포덕 163년 천일기념을 축하합니다!

風過雨過枝 風雨霜雪來
風雨霜雪過去後 一樹花發萬世春

바람 지나고 비 지난 가지에 바람 비 서리 눈이 오는구나.
바람 비 서리 눈 지나간 뒤 한 나무에 꽃이 피면 온 세상이 봄이로다.



 천도교시원포

도정 김성환

고문 이국진

도훈 최상락 주용덕 이승민

교훈 이원주 최석문 최중환 이명자 이영례

변종제 박도연 신주민 이갑식 이창용

서광우 최정옥 송영헌 안병준 유중재